

도시속의 경계의 다변

문준수 김민호 박소희 |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

도심의 공원화 형성, 소통적 역할

승인시장이 위치한 미아리 상권은 대로변 백화점과 상점 등과 조화롭게 성장하고 있는 상권이다. 이복잡한 밀도에서 승인시장을 도심 속 재래시장의 구성으로 삼아 문화의 한 형태로 탄생시켜 주변상권들과의 연계를 도모한다.

재래시장은 수많은 Community를 형성하여 서로간의 정보교환 및 경쟁적인 반 통합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. 그리고 각각의 Community가 Link됨으로써 만나는 점에 Node가 형성한다. 이것은 노점의 형태를 지니기도 한다. 이러한 시스템에 도심의 공원화를 형성함으로써 도심의 소통적 역할과 Prosumer와 같은 또 다른 노점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.

